

통증-정신건강 AI 치료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 과학기술원 통증연구단, AI 스타트업 '카운트 마인드'와 업무협약
- 통증과 우울증 치료에 새로운 방법론 제시 기대



▲ 4월 6일(목) 지스트 다산빌딩에서 과학기술원 통증연구단과 카운트 마인드가 통증-AI 치료 솔루션 협력연구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운트 마인드 최준석 박사·김지수 박사, 과기원통증연구단 정의현 단장(지스트 의생명공학과 교수), 카운트 마인드 추성권 대표, 과기원통증연구단 실증센터장 권혁상 교수(지스트 의생명공학과), 과기원통증연구단 김태 교수(지스트 의생명공학과)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직무대행 박래길) 등 4대 과학기술원 공동 난치성 통증 연구단(이하 과기원통증연구단, 단장: 지스트 의생명공학과 정의현 교수)은 스타트업 카운트 마인드(대표 추성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통증-정신건강 인공지능 치료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협약식은 4월 6일(목) 과기원통증연구단 연구진과 카운트 마인드 추성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스트 다산빌딩 이종현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설치된 과기원 통증연구단의 리빙랩(Living Lab)*에서 카운트 마인드가 개발 중인 AI 모션인식 웨어러블 기기를 도입하여 통증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치료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임상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리빙랩(Living Lab)**: 살아있는 실험실, 생활연구실 등 일상생활의 실험실이란 의미로 시민(사용자)이 주도적으로 생활 속 문제(도시문제)를 발견, 해결책을 설계하여 직접 문제해결까지 해나가는 사회혁신 정책을 뜻한다.

과기원통증연구단은 **난치성 만성통증의 신경학적 기전 규명을 통한 객관적인 진단 및 정밀신경조절 기반의 비약물적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출범했으며, 지스트를 포함한 4대 과기원, 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등 의료기관, 특허법인 웰 등 대학·병원·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운트 마인드는 지난 2020년 10월에 설립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우울증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스마트와치형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된 모션인식 센서를 통해 스킨십이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추성권 대표는 “희귀난치성 통증 질환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스킨십 치료 효과를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인간의 통증과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행동을 정량적인 데이터로 수집 분석하여 **통증과 우울증 치료에 최적화된 치료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의헌 과기원통증연구단장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만성 통증과 그로 인한 우울증 문제는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되었다”며 “이번 카운트 마인드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첨단 신경과학과 AI 기술을 융합해 통증과 우울증 치료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